

노비에 대한 ‘양반-노주’의 감정 스펙트럼과 네트워크 신체성*

- 『쇄미록』의 감정 수사와 ‘질병/사망’ 기록을 중심으로

최기숙**

〈차례〉

1. 서론: 노비에 대한 ‘양반-노주’의 감정과 태도
2. 감성의 분할과 노비에 대한 ‘양반-노주’의 감정 스펙트럼
3. ‘질병과 사망’ 기록의 신분적 위계와 감정 재현의 차이성
4. 결론: 노-주의 네트워크 신체성

〈국문초록〉

이 논문은 오희문의 일기 『쇄미록』에 서술된 노비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노비에 대한 양반 노주의 감정과 태도를 감정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하고, 노비의 질병과 사망을 대하는 양반의 태도와 감정 재현을 양반가의 경우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 노-주가 일상적, 경험적, 감성적 차원에서 연결성을 형성했으며, 네트워크 신체성을 구성하고 있었음을 문헌해석학적 방법론을 통해 해명했다. 조선시대 노비는 노주인 양반의 일상을 돕는 보조적이고 사물화된 도구라기보다는 양반(가)의 물리적 일상과 정보, 윤리, 예의, 정서를 유지하고 연결하는 아카이브된 ‘장치로서’의 역할을 했다. 노비에 대한 양반 노주의 감정은 일정 부분 가족이나 지친 등에 대한 감정 반응과 중첩되어 인간 보편의 동질성에 기반한 공감의 등위 감정으로 표출된 경우도 많지만, 신분적, 도덕적 요인에 따라 미움과 분노 등 위계 감정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감정 주체인 노주는 노비의 계약 위반이나 의무 또는 약속의 불이행, 업무 지체, 사취, 도주, 거짓말, 무례, 불손, 비위생 등에 대해 도덕적, 윤리적인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2A01062613).

** 연세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교수

판단을 발휘해 감정 표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양반은 노비와 일상과 생애 시간을 공유했기에, 노비에 대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적층되었고, 이질적인 감정이나 양가감정이 교차했다.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노비에 대해서는 감정이 복합적으로 축적되었는데, 노주로서의 돌봄 의식과 책임감으로 이를 통합하는 지향성이 나타났다. 이 연구는 노주 양반이 노비에 대해 인지, 경험, 재현한 감정 기록을 중심으로 노-주 간에 작동한 네트워크 신체성의 실상을 해명함으로써, 양반 남성이라는 동성·등위 집단에 대한 정치적·사상적·학문적 이해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었던 현실적이고 감성적 차원의 노-주 관계를 해석하여, 조선시대 역사와 문화에 대한 편폭을 심화·확장하고자 했다.

주제어 노비, 양반, 오희문, 쇄미록, 일기, 질병, 감성, 감정, 네트워크 신체성, 아카이브 신체

1. 서론: 노비에 대한 ‘양반-노주’의 감정과 태도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의 양반 오희문(1539~1613)이 임진년 전쟁을 만나 피난하면서 쓰기 시작한 일기인 『쇄미록』(1591.11.27.~1601.2.27.)¹⁾에 서술된 노비 관련 기록에 대해 문학해석학적 방법으로 탐구하여, 노비에 대한 양반 노주의 감정과 기대, 관계를 해명한다. 이를 통해 명령과 순응, 지배와 복종의 이분법적 관계로 이해되어 온 노-주 관계의 복합성과 다양성을 밝히고, 소유와 매매가 가능한 재산처럼 여겨진 노비가 양반(가)와

1) 이 글에서 참조한 텍스트는 오희문, 『쇄미록』 1~8, 국립진주박물관 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옮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년. 1~6권은 번역본이고, 7~8권은 원문이다. 이 글에서 본문을 인용할 때는 번역본과 원문의 서지사항을 모두 밝히되 ‘;’로 구분하여 적었다. 연구에는 번역본과 원문을 모두 참고했으나, 논문에 인용할 때는 논문 문체의 일관성을 위해 필자가 부분적으로 윤문하거나 새로 번역했다. 일기의 날짜는 번역본을 참조해 서기로 적는다.

맺었던 사회적 교섭의 현실적 양상 및 감정 교류의 다층적 복합성을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²⁾

오희문은 임진년 전쟁을 만나 피난길에 나선 뒤, 일기 형식으로 일상을 기록함으로써 혼란스런 일상을 심리적·정서적으로 정돈하는 한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차원에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일상생활을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고자 했다. 『쇄미록』에는 오희문과 동행, 또는 동거한 가족과 지친은 물론, 오희문이 관리하던 가축으로서의 노비에 대한 각종 정보와 행동, 정황이 서술된다. 이 논문은 『쇄미록』에 서술된 노비에 대한 오희문의 감정 서술에 주목해, 노비에 대한 양반 노주의 인식과 이해, 감정적 응대와 내면의 반응, 관계성의 실제 등을 사유하는 단서로 삼는다. 이에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 주목한다.

첫째, 노비에 대한 양반 노주의 감정 경험과 재현의 수사적 특징을 살핀다. 둘째, 노비에 대한 양반의 감정 표현의 다양성과 편폭을 감정 재현과 표현의 '스펙트럼'으로 명명하고, 그 실제와 양상을 분석한다. 셋째, 노-주

2) 조선시대 노비에 대한 연구는 지승중, 『朝鮮前期 奴婢身分研究』, 일조각, 1995; 김용만, 『朝鮮時代 私奴婢研究』, 집문당, 1997; 전형택, 『조선 양반사회와 노비』, 문현, 2010; 이해정, 「16세기奴婢의 삶과 의식 세계: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경희대 박사논문, 2012; 최기숙, 「매 맞는 노비와 윤리/교양의 역할: 『목재일기』의 문학해석학적 연구」, 『동방학지』 20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3a 등을 참조. 『쇄미록』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 생활사의 관점에서 접근한 신병주, 「16세기 일기자료 『쇄미록』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60, 조선시대사학회, 2012; 정성미, 『쇄미록 연구』, 원광대 박사논문, 2003; 정성미, 「조선시대 사노비의 사역영역과 사적영역: 『쇄미록』에 나타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38, 전북사학회, 2011 및 이 논문의 78쪽 각주 1)번에 정리된 논저와 신병주(2012), 40~42쪽에 정리된 선행연구, 이성일, 「조선중기 오희문가의 상행위와 그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8, 조선시대사학회, 1999 등을 참고. 그 밖에 최기숙, 「조선시대 노-주의 연결망과 공동체성, '아카이브 신체': 『쇄미록』의 노비 기록에 대한 문학해석학적 연구」, 『민족문화연구』 10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3b 등을 참조. 『쇄미록』 6권의 「잡록」, 「노비질」에 따르면 오희문가에 소속된 노비는 24명이며, 유리하는 고아를 노비로 거둔 것을 합하면 대략 30명이다(정성미(2011), 위의 논문, 79쪽 참조).

관계의 다층성과 복합성을 해명하기 위해, 특히 노비의 생명적 사안에 관련된 질병과 사망에 대한 노주 양반의 감정 경험에 주목한다.³⁾ 노비에 ‘대한’ 감정 경험과 표현의 특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주 자신과 가족(양반이면서 혈연)에 대해 인지하고 경험하고 표현한 감정 수사와 노비(천민이면서 지배-종속 관계)에 대한 감정 수사를 비교 분석한다. 넷째, 이를 통해 노비를 바라보는 조선시대 양반의 복합적 태도와 시선, 문자화되지 않았지만 존재했던 관계 역학의 실상을 해명한다. 이를 위한 일차 작업으로 질병과 죽음에 관해 기록된 인물의 모든 사례를 입력하고 분류하여 일종의 ‘수작업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했으나, 논의의 집중성을 위해 노비와 노주 및 양반 가족의 비교와 대조에 초점을 두었음을 밝힌다.

이러한 분석과 탐색은 조선시대 양반이 노비를 대하는 생활 경험의 실상과 정동적 이해⁴⁾를 해명함으로써, 양반이나 왕실 등 상층 신분의 연구나 성별, 신분 등 동질집단에 대한 접근만으로 해명될 수 없었던 조선시대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편폭을 확장하고 심화하는 연구방법론과 실재를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감성의 분할과 노비에 대한 ‘양반-노주’의 감정 스펙트럼

『쇄미록』에는 노비를 대하는 노주-양반으로서 오희문 자신의 감정 반응이 비교적 빈번하게 서술된다. 이 장에서는 오희문이 노비에 대한 관계

-
- 3) 심각한 질병이 인간을 삶의 경계로 데려가서, 삶을 조망하게 하면서 삶의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한다(아서 프랭크, 『아픈 몸을 살다』, 메이 옮김, 봄날의 책, 2017, 7쪽)고 할 때, 질병에 대한 글쓰기는 이를 살필 수 있는 유력한 매개다.
 - 4) 정동적 이해는 문자 중심의 연구가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감정적 현실을 살피는데 필요한 연구 절차이자 방법론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기숙, 『머리말: 감성은 어떻게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가』, 최기숙 외, 『감성사회』, 글항아리, 2014, 5~19쪽을 참조.

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적 반응을 관찰하고 분석하되, 이를 오히문이 자신의 혈육과 가족에 대해 품은 감정과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노비 개인과의 친소성에 따라 노비를 대하는 감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 관계항과 변수에 주목한다.⁵⁾ 이를 통해 한 개인이 인간관계를 통해 촉발되어 경험하는 감정이 혈연적 친소성, 신분적 위계에 따라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이해하는 단서로 삼는다.

1) 감정 분할의 조건: 친소성과 신분적 위계

『쇄미록』에서 오히문은 가족, 친지, 지인, 동료, 노비 등의 질병이나 죽음을 상세히 기록했다. 이때 일괄적으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적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무게 중심에 차이를 두고 관련 소식이나 정보를 적고, 선택적으로 감정 표현을 했다. 일관된 양상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한 감정 기록에 일종의 선택적 양상을 보인다는 점은 감정이야말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이해와 경험의 소산임을 방증한다(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감정 경험과 표현은 무의식으로 작동하는

5) 필자는 일차적으로 『쇄미록』에 기록된 노비 관련 기록을 모으고, 그 중에서 노주의 노비에 대한 감정 수사를 일일이 메모해 수집하고 범주화했으나, 이에 대한 통계 분석은 수행하지 않고, 주요 감정을 사례로 들어 논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단지 논문에 허용된 형식적 규범(원고의 분량 제한) 때문만은 아니며, 대표 감정을 선별해 논의하는 것이 통계 분석 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는 그간 고소설(<남원고사>를 포함한 춘향전의 이본들, <하진양문록>, <사씨남정기> 등)와 일기(『목재일기』), 야담 서사, 신소설(<제국신문>에 연재된 이해조 소설 6편) 등을 대상으로 감정 수사에 대해 통계 분석을 경유한 필자의 연구 경험에 근거한다(최기숙, 「고소설에 나타난 '부부 불화'의 통계 분석을 통해 본 '부부 갈등'과 '결혼 생활'의 상상 구도」, 『동방학지』 149,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0; 『목재일기』, 16세기 양반의 감정 기록에 대한 문학/문화적 성찰」, 『국어국문학』 193, 국어국문학회, 2020; 「'말한다는 것', 이른 바 '왈(曰)을 둘러싼 한글 소설 향유층의 의사소통 이해와 실천: 한국서사문학사의 발화동사를 둘러싼 '어휘군/어휘장' 분석을 경유하여」, 『동방학지』 19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1 등).

무조건반사가 아니며, 직관과 감성이 연결된 정동적 수행이다).

- ① 윤희가 하는 수 없이 눈보라를 무릅쓰고 길을 나섰다. 집에 남종이 없어서 겨우 어린 남종 안손을 데리고 갔다. 노자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갔으니 도중에 결식하면서 가야 할 것이다. 몹시 안타까워 눈물이 난다.⁶⁾

위에서 길 위에서 눈보라가 치는 혹한을 맞은 것은 아들(윤희)과 남종인데, 오희문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눈물 흘리며 자책한 대상은 아들이다. 오희문은 양식이 부족해 자식들이 죽을 먹는 모습에 탄식했지만, 종에 대한 염려는 쓰지 않았다.⁷⁾ 노모의 안부를 챙기려 남종을 보내면서 추위로 고생하는 노모와 아우를 걱정했지만,⁸⁾ 여기에 남종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희문은 피난차 헤어진 노모, 처자식, 아우들, 여동생, 조상(신주)을 생각하며 통곡하고 목메는 심정을 자세히 적었다(㉗). 대략 5월 4일 이후, 8월 1일까지, 오희문은 노모와 처자식 생각에 비통한 심경을 적었다(㉘). 꿈에 아내와 딸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㉙), 4~5세의 막내아들이 죽는 꿈을 꾸고 불안해했으며(㉚), 연달아 아내가 꿈에 보이자 자식들과 같이 죽었다고 여기며

6) '諧也不得已冒風雪而發, 家無奴子, 只率童奴安孫而行, 行資亦不得備去, 欲於中路乞食而歸, 尤極恨泣.' (1593.10.21. 2:206; 7:272)

7) '요새 양식이 없어서 날마다 죽을 썬어 먹는데도 오히려 그릇을 채우지 못해 아이들이 배고픈 탄식을 금치 못했다. 더욱 애처롭고 불쌍하다. 송노가 지난달 20일부터 말미를 얻어 집으로 돌아갔는데,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굶주림이 이와 같은데 집에 심부름 시킬 사람이 없어서 아는 곳에 가서 꾸어 오지도 못한다. 몹시 뭉다(近因無糧, 逐日作粥而食, 猶不備器, 兒輩不堪枵腹之嘆, 又可悲憐. 且宋奴前月念後, 受由歸家, 至今不還. 阻飢如此, 家無使喚, 尚不得乞貸於有知處, 痛憎痛憎.)' (1593.10.22. 2:297; 7:273)

8) '두 남종을 강도로 들여보낸 지 10여 일이 되어 가는데, 무사히 들어가서 노모를 찾고 있는지 몰르겠다. 풍설이 갑절이나 찬 요즘에 노모와 아우가 어떻게 참고 견딜까. 끝없는 아픔이 날이 갈수록 깊어진다(且兩奴入送江都, 今將十餘日, 味知無事入去尋見老母耶. 近日風雪倍寒, 老母舍弟, 何忍堪處? 罔極至慚, 與日俱增.)' (1592.11.17. 1:297-298; 7:134)

에통해 숨이 멎을 지경이라고 썼다(㉑).⁹⁾ 그가 마음으로 항상 걱정한 이는 노모, 처자식, 아우, 여동생, 조카 등 가족이다. 이에 비해 노비에 대한 걱정을 기록하거나 꿈에 본 기록은 없다. 노비는 양반의 일상을 돕는 도구적 존재로 여겨졌기에, 이들의 수고로움이나 고통에 관심을 두고 기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거나 절대적이라고 여기지 않은 것이다.

이는 감정 표현이 전적으로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혈연, 친소성, 신분 등 대상 인물과의 관계와 사회적 위치성에 따라 분할되었음을 시사한다. 일기 쓰기를 통해 감정의 분할적·선택적 수행이 표현되었다.

2) 노-주 신체의 연결성과 '아카이브-노비 신체'라는 장치

신분적 위계가 반드시 혈연적 친소성에 종속되거나 친소성 정도에 따라 절대적·기계적 차원에서 배타적으로 작동한 것은 아니다. 양반 노주와 노비가 신체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여겨진 사례도 자주 보인다. 노주는 자신에게 예속된 노비를 통해 편지와 물품 등을 주고받았다.¹⁰⁾ 노비는 노주의 물건을 운반하고 전달하는 대리-신체의 역할을 하면서 노주의 생각과 마음, 감정이 담긴 편지 등 정보와 감정도 전달했다. 노비는 노주와 분리된 객체인 동시에, 노주와 연결된 신체성을 형성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비가 노주가 써준 편지 없이, 노주가 전하고자 한 말과 마음을 대신 전했다. 이 경우 노비와 노주의 신체적 연결성은 강화되었다. 노비는 양반이 예의를 표하고 교양과 인간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매개이자 연결체였다. 노비와 노주는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온전히 분리될 수 없었다.

9) ㉑ 1591.4(날짜 없음). (1:69-72; 7:15) ㉒ 1591.8.1. (1:165; 7:60) ㉓ 1591.7.3. (1:135-136; 7:44) ㉔ 1592.8.14. (1:194; 7:75) ㉕ 1592.8.16. (1:205; 7:81)

10) 이는 노-주가 생활 공동체를 형성했음을 조명한 선행연구(최기숙, 2023, 143~147쪽)를 참조. 노가 아프거나 없을 때, 외부와 소식이 차단되었다고 분석한 연구(정성미 (2003), 앞의 논문, 93쪽)는 사실상 노-주의 연결성에 대한 인정을 포함한다.

- ② 막정이 돌아오자 아내가 그편에 천안으로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물었고, 그 쪽에서도 우리 사내종을 보고 모두 반갑게 맞아 주었다.¹¹⁾
- ③ 한 식경이 지나 막정이 온다는 말을 듣고 문으로 달려가 맞으며 물으니, 어머니는 지난달 22일에 고양에서 강을 건너 강도로 들어가셨는데 두 남 종이 찾아가 뵈니 기력이 여전히 강녕하셨다고 한다.¹²⁾

오희문의 아내는 노비 막정에게 천안의 동서(오희문의 형수)에 전할 편지를 전하고 안부를 묻게 했다. 동서가 막정을 환대할 것은 평소에 안면이 있어서지만, 그가 오희문 부부와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막정이 오희문가와 맺었던 인연의 역사, 가지고 온 소식(실물 편지 또는 구두 전언)은 막정이라는 신체성과 불가분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오희문은 어머니를 만나고 온 노비 막정이 도착하자 문으로 달려가 맞이했는데, 이는 막정에 대한 반가움의 표현이기에 앞서, 그를 통해 어머니와 아우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노비(막정)는 양반 가족을 왕래하며 서로를 이어주는 연결체였다.

좋은 종의 소유주와 신체적, 일상적, 정서적으로 연결되었고, 이는 타자의 시선에서도 자연스럽게 인정되었다. 오희문은 지인 박승원의 종이 구걸하러 오자 노래를 부르게 했고, 처량하고 원통한 감정을 느꼈다. 이에 지인(박승원)의 죽음을 떠올리며 비통한 심정으로 종에게 소금과 양식을 주었다.¹³⁾ 노비가 노주를 상기시켰기에, 사망한 노주(오희문에게는 지인)와 연

11) ‘莫丁之歸，荊布致簡問候，彼亦見其吾奴，咸來歡迎.’ (1593.4.5. 2:44; 7:182)

12) ‘且食頃，聞莫丁入來，走門迎問，則天只去月二十二日，自高陽渡江，入居江都，而兩奴尋見，氣體尙康寧.’ (1592. 11.29. 1:303-304; 7:137-138)

13) ‘총각 둘이 피리를 들고 와서 구걸하기에 어디에 사느냐고 물었더니, 집이 한양 신성동에 있다고 했다. 또 누 집 종이냐고 물었더니 판윤 박승원의 종으로 호서로 피난 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양식이 없어서 구걸한다고 했다. 이에 한 곡조 불러 보라고 했더니 맑은 소리가 그윽하고 밝아서 처량하고 원통함이 지극했다. 나도 타향을 떠돌고 있는 터라 듣고 나니 슬픈 감회가 더욱 지극히 일었다. 하물며 박판윤

결된 존재로 여겨 그의 노비를 도왔다.

- ④ 막정을 정산의 갓지 집에 보내서, 갓지에게 조씨 집안이 가난한지 부유한지와 처녀가 어떠한지를 물어 오도록 했다. 인아의 혼인을 의논하기 위한 일이다.¹⁴⁾

오희문은 넷째 아들 인아(윤성)의 혼인을 의논하기 위해 남종 막정과 갓지의 정보망을 활용했다(④). 노비의 경험과 관찰, 질문과 대답에 의지해 아들의 혼사 정보를 수집했다.¹⁵⁾ 또한 오희문은 신응구의 남종 춘복에게서 신응구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¹⁶⁾ 정보의 출처가 노비다. 양반(가)의 사회적 네트워킹은 일면 노비의 감각과 성실성,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했다.

오희문은 종을 시켜 진안 현감에게 편지를 전하게 했는데, 이때 남종이 사령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하자, 안타까워했다.¹⁷⁾ 노주의 편지를 전하는

은 나와 한 마을에 살아 서로 안 지가 오래인데, 지난해에 갑자기 평안도에서 죽었다. 이제 그 남종을 보고 생각이 떠오르니 어찌 비통하지 않으랴. 이에 소금과 양식을 주어 보냈다(且有總角兩人, 把篋而來乞者, 問之居何地. 曰: “家在京城新城洞.” 又問誰家奴也. 答曰: “朴判尹崇元之奴, 而避亂湖右, 今欲還鄉, 無糧而乞.” 令吹一曲, 則清聲遶樞, 極其悽愴. 余亦飄落他鄉, 聞之尤極悲感. 況朴相乃余一洞, 相知有舊, 去年卒逝於關西. 見其奴而想念, 寧不爲之傷痛也?).’ (1593.5.12. 2:87; 7:205)

- 14) ‘送莫丁于定山罷知家, 使罷知問趙家之貧富及處女如何, 議婚鱗兒事也.’ (1593. 윤11.18. 2:244-245; 7:296)
- 15) 물론 혼사 정보를 전적으로 노비에 의존한 것은 아니다. 오윤성의 혼사에는 사위가 된 신응구의 도움이 컸다. 한편, 정산현감 정전경은 오윤겸 처가의 여종의 남편인 유랑을 통해 오희문의 처녀를 후처로 삼고 싶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오희문은 나이 차를 이유로 거절했지만, 양반가의 혼사에 종의 역할과 정보력이 작용한 정황이 파악된다. 오희문가의 혼맥에 대해서는 김연수, 『쇄미록』에 나타난 16세기 혼맥과 친족 관계, 『한국민속학』 75, 한국민속학회, 2022, 97, 99쪽을 참조.
- 16) 1596.9.21. (4:445; 8:126) 오희문은 함열 현감인 신응구가 상처하자 그보다 19세 어린 장녀를 그의 세 번째 처(三妻)로 출가시켰는데, 그의 둘째 처가 별세한 뒤부터 혼담이 오갔다(김연수(2022), 96~98쪽).

종은 노주와 연결된 존재였기에, 종이 모욕받은 정황이 노주에게 무관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오희문은 함열 현감이 아내의 초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 현감이 보내준 양식을 운반하던 송노를 보내 조문했다¹⁸⁾ 노비는 식량 전달이라는 생명 활동은 물론 조문이라는 예의를 표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선시대 노비가 노주인 양반의 명에 따라 물건과 소식(정보)전달의 임무를 수행할 때, 이들은 단지 기계적으로 물건만 나르고 소식만 전한 것이 아니라 윤리, 예의, 정, 마음, 정서도 전했다. 노비는 노주와 신체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주로 하여금 예의와 교양을 갖추고 원만하고 윤리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장치’와 같았다. 이는 사물화된 도구적 존재와는 구별된다.¹⁹⁾ 도구적 존재는 기능적 차원에서 교체나 교환이 가능하지만, 노주와 신체적으로 연결된, ‘장치’로서의 노비에게는 활동(노동)을 매개로 지식과 정보, 감성과 윤리 등이 축적되어 경험과 기억 차원의 아카이브 신체성이 확보되기에 단순한 도구적 속성을 넘어선다.²⁰⁾ 이런 노비의 성격은 노주기에 소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친밀

17) 1593.12.10. (2:256; 7: 303)

18) 1594.3.4.-3.8 (2:62; 7:362)

19) ‘장치’로서의 노비는 실제로 노주인 양반이 노비를 도구나 수단으로 간주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며, 이를 넘어선 포괄성을 갖는다. 노주 개인이 노비를 교환(매매) 가능한 도구, 또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 것은 의식과 문화의 차원이며, 그 이면에서 노비가 일상의 ‘장치’로 작동했다는 판단은 정치적 무의식과 감성 차원의 이해다. 정성미는 노비주의 사노비 인식에 대해 인간적 차원보다는 사유물로 간주하여, 사회경제적 효용성에 입각해 사환이나 신공의 의무를 부과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보았고, 특별한 경우 주노관계를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했다고 분석했다(정성미(2003), 앞의 논문, 101~102쪽). 기록된 문면의 표현을 보면 이런 관점이 타당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록 이면의 전체나 감정 분석을 통해 노-주의 연결성과 네트워크적 차원에 주안점을 둔다.

20) ‘아카이브(된) 신체’에 대한 개념은 최기숙(2023)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노비가 일생토록 경험과 능력, 자질과 태도를 자기 정체성과 역량으로 축적하면서 자기를 구성하는 양상을 언급한 개념이다.

성을 형성한 소나 말 같은 가축과도 일정 부분 상통한다. 물건을 운반하던 말이 병들거나 진흙에 빠지면 양반의 생명 활동에 지장을 주었는데, 이런 정황은 양반-노비-말(동물)이 양반의 일상을 지탱하는 연결 구조를 이루기에, 어느 한쪽에 불편하거나 병이 들면 삼각 구도 전체가 흔들렸다.²¹⁾ 역설적으로 이는 ‘양반-노비-동물’의 연결성을 시사한다.

노비는 양반의 신체 및 일상과 연결성을 유지했지만, 개인적 사유로 휴가와 외출, 고향 방문 등 사생활을 유지했기에,²²⁾ 시공간적 차원에서 노주와 분할되어 독립성을 유지했다. 이때 노비는 노주가 허락한 개인적 시간을 임의로 초과하거나 문제적 상황을 만들고, 거짓으로 고해 노주와의 분할선을 연장하고자 했다.²³⁾ 오히려의 경우, 이에 대해 대체로 노비의 선택을 수용했는데, 이는 노비의 거짓에 대한 확증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이다.²⁴⁾

노비와 양반의 연결성은 항상적으로 작동하는 동시에 분할적으로 작동해 다음과 같이 중첩적이고 복합적 관계를 형성했다. 첫째, 양반가에 대한

21) ‘오늘 오는 길에도 말이 진흙에 빠져 또 짐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불 보따리가 다 젖었다. (...) 이는 실로 말이 피로하고 사내종이 병든 탓이다(今日來路, 馬陷泥水, 又覆所載, 寢褥盡濕. (...) 實因馬疲奴病.)’ (1594.8.4. 3:179; 7:432) 등. 조선시대에는 사람뿐 아니라 가축의 전염병을 퇴치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였는데, 우마가 주요한 동물 자원이고, 인간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지만, 우마 같은 무지한 동물에게까지 호생 지택을 입게 하기 위함이었다. 가축을 인간의 도구로만 간주하지 않은 관점이 존재했다(이상은 이종봉, 『『新編集成牛·馬醫方』 편찬배경과 찬자』, 『역사와경계』 121, 부산경남사학회, 2021, 234쪽; 천명선, 「조선시대 가축전염병: 개념, 발생 양상 및 방역을 중심으로」, 『농업사연구』 13(2), 한국농업사학회, 2014, 124쪽을 참조).

22) ‘송노가 제 일가를 만나려고 휴가를 얻어 청양 땅으로 갔다(宋奴受由, 欲見其族, 往靑陽地.)’ (1594.3.23. 3:73; 7:368); ‘그래서 곧바로 편지를 쓰고 한노를 익산으로 보내 그대로 모시고 가게 했다. 제 아버지를 찾아보게 하기 위해서이다(故漢奴即修書, 及送益山, 因陪往, 亦欲以推見其父耳.)’ (1594.10.25. 3:229; 7:463) 등.

23) ‘덕노가 오늘 와야 하는데 오지 않으니 까닭을 알 수가 없다(德奴今日可來而不來, 未知其故也.)’ (1596.2.13. 4:273; 8:22) 등.

24) 거짓이 확실한 경우, 잡아서 때리기도 했다(1597.6.26. 5:149-150; 8:248) 등. 이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2장 3)절의 (2)항에서 논한다.

노비의 조력과 협력은 일상 속에서 (비)가시적으로 축적되었고, 잠재적으로 항상적 관계로 전제되었다. 노비와 노주의 관계를 알고 있는 가족과 지인은 상대의 노비와 비/정기적인 연결망을 형성하면서 관계를 다졌다. 둘째, 노비는 시공간적 경험 속에서 항상 노주와 연결성을 유지한 것은 아니었고 사생활, 휴가, 귀향 등의 사유로 노주와 분리되거나 일상 속에서 경험의 독립성을 유지했기에 노-주 관계망의 분할선을 형성했다. 이 두 차원을 고려할 때, 노비는 양반의 생활적 장치의 역할을 하면서 노주-양반 사이에서 진자운동처럼 상호작용했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노-주 네트워크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3) 노비에 대한 노주의 감정 경험과 수사적 스펙트럼

오희문의 노비에 대한 감정은 복합적이고 다선적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오희문이 노비에 대해 표현한 감정 경험을 다음의 세 영역으로 범주화해 분석한다. 첫째, 주체(오희문)와 타자(노비)의 인간적·생명적 동질성에 바탕을 둔 등위(等位) 감정, 둘째, 노주의 신분적·도덕적 위치성에 바탕을 둔 위계 감정, 셋째, 복합 감정의 교차 경험과 이에 대한 감정의 유보와 통합이다.

(1) 등위 감정

오희문은 노비에 대해 동정, 걱정, 불안, 의심, 기다림, 체념 등의 다양한 감정 반응을 표현했다. 이는 오희문이 노비에 대해 인간적, 생명적으로 동질감을 느끼기에 가능했던 감정이다. 역으로 이런 감정의 인지와 표현을 통해 오희문은 노비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인간적인 동류의식을 경험하고 이해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이 판단에 논증과 이론은 언어와 사고 [thinking]의 관련성에 대한 일반론으로 설명이 가능하기에 생략한다). 이

에 해당 감정을 등위 감점으로 명명하고 해당 사례를 범주화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희문은 노비를 반기고 그들의 기쁨에 공감했으며, 굶주림, 질병, 사망 등 부정적 상황에 처한 노비를 동정했다.

- ⑤ 저녁에 광주에 사는 여종 어둔이 아들 덕세를 데리고 여러 곳을 걸식하다가, 우리 집이 여기에 있다는 말을 듣고 수원에서 곳곳마다 찾아다니다가 어두워져서야 들어왔다. 매우 가련하다. 그 어머니는 난리 초에 적에게 피살되었다고 한다. 내가 한양에 있을 때 해마다 양지에 있는 농사를 왕래할 때마다 그 집에 들러서 묵었는데, 지금 비명에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슬프다.²⁵⁾

오희문은 광주에 살던 여종 어둔이 아들 덕세를 데리고 걸식하다가 고생 끝에 자신을 찾아온 사연을 듣고 불쌍히 여겼고, 어둔의 어머니가 난리 초에 죽었다는 소식에 애처로움을 표했다(⑤). 아픈 노비에 대한 동정은 자연스러운 인간적 감정의 발현이다. 오희문은 굶주린 노비,²⁶⁾ 빗길에 식량을 지고 어머니를 수행하는 종들을 걱정했고,²⁷⁾ 아픈 노비를 안타까워했으며,²⁸⁾ 피난으로 산에서 지낸 종들을 동정했고,²⁹⁾ 세 아들에게 귀마개를 만들어줄 때 두 남종에게도 해주었다. 자신이 아기였을 때 돌봐준 친가의 여종 혼비

25) ‘夕，廣州居婢於屯，率其子德世，諸處乞食，自水原聞吾家在此，寸寸尋覓，乘昏入來，可憐可憐。其母則變初，被害於賊云。余在京時，年年往來陽智農舍時，歷宿其家，今聞死於非命，尤可哀哉’。(1593.윤11.20. 2:245; 7:297)

26) 1594.1.26. (2:33; 7:345). 오희문은 전란에 굶주리는 백성들 생각에 슬프고 참혹한 마음을 표했고(1593.7.15. 2:135; 7:231), 길에서 여자와 어린아이가 통곡하는 것을 보고 연유를 묻고, 가엾게 여겼다(1593.7.15. 2:136; 7:231). 그 밖에도 오희문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동정심이 많다는 것을 논증할 사례는 많다.

27) 1594.2.10. (3:45-46; 7:352)

28) 1595.5.24. (4:125; 7:587)

29) 1592.8.1. (1:166; 7:60)

가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을 표했다.³⁰⁾ 이는 노비와 인간적인 교감이 있고 추억이 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노비에 대한 공감과 동정에 반드시 친분이 전제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오희문은 엄마에게 버림받고 우는 아이의 사연에 죽음을 예감하며 연민을 표했고,³¹⁾ 엄마의 시신 곁에서 우는 아이의 사연에 슬퍼했다.³²⁾ 도탄에 든 백성의 처지에 탄식하고, 피난 중에 밥을 훔쳐 먹는 이들을 동정했으며, 남종들이 때리려 하자 만류할 정도³³⁾의 인류애적 정서가 있었다. 유사 상황에 대해 자기 소유의 노비뿐만 아니라 손님이 데려온 종에게도 같은 반응을 했다. 이는 신분이나 형편에 대한 이해 이전에 생명적 동류의식이 중요하게 작용해서다. 양반은 노비를 포함해 타인의 안타까운 처지에 동정하면서 인간적·생명적으로 연결된 존재가 되었다. 이때 신분적 위계나 구별에 대한 인지는 감정 경험과 표현의 분할선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둘째, 오희문은 심부름, 전달, 이동과 운반 업무를 맡긴 노비가 늦어지거나 오지 않을 때, 걱정과 답답함, 의심과 불안을 표했다.

- ⑥ 덕노가 오늘 와야 하는데 오지 않으니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윤희의 사내 중 춘이도 날짜가 지났는데 오지 않으니 역시 걱정스럽다.³⁴⁾
- ⑦ 명노는 오늘도 오지 않았다. 괴이하다.³⁵⁾

30) ‘훈비는 내가 포대기에 싸인 아기였을 때 업어 주고 안아 주었다. 굶어 죽었다고 들으니 더욱 슬프다(欣非在我襁褓時，負抱之因，聞其死於餓，尤可悲戀悲戀).’ (1593.12.7. 2:254; 7:302)

31) 1594.1.23. (2:31; 7:343)

32) 1594.2.14. (2:49; 7:352)

33) 1594.1.4. (3:18; 7:336-337)

34) ‘德奴今日可來而不來，味知其故也。生員奴春已過期不來，亦可慮也.’ (1596.2.13. 4:273; 8:22)

35) ‘命奴今日不來，可怪可怪’ (1594.4.23. 3:94; 7:381)

노비는 때때로 노주의 일과 무관하게 개인적 용무나 휴가의 사유로도 이동했는데, 이 모든 경우에 대해 오희문은 노비의 이동 경로와 날씨, 업무 수행도, 임의의 사고(도망, 습격) 등을 예측해 불안해했다. 위 사례는 역설적으로 노비에게 부여된 이동과 운반의 업무가 전적으로 노비에 대한 노주의 신뢰에 바탕을 둔 일이었다고, 이동 업무의 결과나 수행의 질이 불확실했음을 시사한다. 오희문은 신분적 위계나 인간-동물의 경계를 넘어 측은지심이라는 생명적 차원의 공감 능력이 있었기에, 귀가가 지체되는 노비를 걱정했다. 노비의 업무 지체가 인내 수준을 넘어서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에 불편감을 표했고 ‘괴이하다’고 썼는데, 이는 노비의 도주, 거짓말, 속임수 등을 예측했기 때문이다.

셋째, 오희문은 노비의 업무 지체와 수행 미숙, 잘못이나 실수, 거짓말을 일일이 밝히고 책망하기보다 눈감아주거나 포용했고, 탄식하며 체념했다.

- ⑧ 송노와 늑은비에게 김을 매게 했는데 끝내지 못했다. 다만 벗모가 너무 드물어서 수고롭기만 하고 아무런 보람이 없었다. 몹시 안타깝지만 어찌 하겠는가.³⁶⁾
- ⑨ 저녁에 춘이가 돌아왔다. (중략) 팔아 온 보리가 이것뿐이니 분명 나를 속이는 것이다. 한탄한들 어찌하겠는가.³⁷⁾

오희문은 노비가 환경적 요인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었을 때, 또는 노동의 질이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병을 핑계로 태만하거나³⁸⁾ 거짓말을 했을 때, ‘안타깝지만 어찌하겠는가(雖恨奈何奈何)’라는 표현을

36) ‘命宋奴·讒隱婢芸草, 而未畢. 但禾苗甚稀, 徒勞而無效, 深恨奈何?’ (1595.5.6. 4:115; 7:581)

37) ‘夕, 春已入來. (...) 而所販之牟至此, 必欺余哉! 雖恨奈何奈何?’ (1594.5.19. 3:113; 7:393)

38) 1594.5.21. (3:117; 7:395) 등.

자주 썼다. 결과에 대해 노비를 탓하기보다 상황과 결과를 수용했다. 상황이나 사태에 대해 체념하는 것은 오희문의 성격, 기질과도 연관된다.

이런 태도는 이문건이 『목재일기』에서 노비를 자주 매질한 기록과 대조적이다.³⁹⁾ 이문건은 노비뿐 아니라 아들과 손자도 자주 체벌했기에, 두 일기의 기록을 곧바로 쓰기 주체의 성격이나 타인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로 대조할 수는 없지만, 노비의 업무 수행에 대한 양반의 태도는 신분적 위계에 따라 일률적이었다기보다는 개인차가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⁴⁰⁾ 오희문이 노비의 잘못과 실수에 관대했다기보다는 체념했고, 이를 기록한 것은 대상 노비를 관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에 대해 심리적으로 정돈해서 일상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편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오희문은 적어도 글쓰기 과정을 통해 목적중심적이고 성취지향적이라기보다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성향으로 자기를 재구성했다.

(2) 위계 감정

동정이나 공감이나 노-주 사이에 인간적, 생명적 연결성이 작동했다면, 노비에 대한 미움과 분노는 노-주간의 심정적, 계약적 거래나 신뢰를 위반했다는 고용주로서의 판단에 근거했기에, 위계 감정으로 명명한다. 그런데, 이는 단지 노-주라는 신분적 차이 때문에 발현된 감정은 아니다. 미움과 분노의 표현에는 노비의 계약이나 신뢰 위반, 무례, 비위생 등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이 작용했다. 이 또한 도덕과 윤리에 대한 노주의 위계가 전제되었기에, 위계 감정으로 명명할 수 있다.

39) 최기숙(2023a), 앞의 논문을 참조.

40) 이를 오희문의 개인적 성향이나 기질로도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런 태도가 국가 정세, 사회적 상황, 가족과 지인을 대할 때 일관되게 발견되었고, 노비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⑩ 분명 도중에 팔아서 쓰고는 빼앗겼다고 핑계를 대는 것일 게다. 몹시 괘씸하다. 층아 어머니와 인아가 아파서 이것들을 가져오면 죽을 쑤어 먹이려고 했는데, 잃어버렸다고 핑계를 대니 더 화가 난다.⁴¹⁾
- ⑪ 송노와 늑은비가 모두 병을 핑계로 감을 매지 않는다. 밭다.⁴²⁾

오희문은 미움과 분노의 원인이 되는 노비의 언행과 상황을 서술해서 감정 표현의 근거를 병치했다. 이는 거짓말(⑩), 칭병(稱病)(⑪), 물건의 착복,⁴³⁾ 훔침,⁴⁴⁾ 계산을 속임,⁴⁵⁾ 게으름,⁴⁶⁾ 일을 느리게 함,⁴⁷⁾ 약속을 어김,⁴⁸⁾ 신공의 의무를 저버림,⁴⁹⁾ 도주,⁵⁰⁾ 업무 및 귀가 지체,⁵¹⁾ 명령 불복종,⁵²⁾ 노주에게 손해를 끼침,⁵³⁾ 노주의 명보다 자기 몫을 더 챙김,⁵⁴⁾ 물건의 관리

41) ‘亦必中路賣用，假托被奪也。痛憎痛憎！忠母·鱗兒病中，方欲待此食粥，而托稱見失云，不勝痛憤痛憤.’ (1594.5.8. 3:106; 7:389)

42) ‘宋奴·訥隱婢皆稱病不芸，可憎.’ (1595.6.6. 4:131; 7:592)

43) 1593.2. (2:37; 7:178)

44) 1593.10.30. (2:212; 7:275); 1594.6.1. (3-125; 7:400); 1595.5.18. (4:122; 7:585); 1597.12.26. (5:296; 8:334) 등.

45) 1594.5.19. (3:113; 7:393); 1596.4.21. (4:315; 8:49); 1600.2.14. (6:235; 8:611) 등.

46) 1598.7.13. (5:422; 8:412)

47) 11598.5.21. (5:391; 8:393)

48) 1600.4.7. (6:266; 8:630)

49) 1593.3. (2:39; 7: 179) 『쇄미록』에서 신공에 대한 분석은 정성미(2003), 앞의 논문, 77~78쪽을 참조

50) 1593.5.20. (2:92; 7:208)

51) 1594.4.7. (3:84; 7:375); 1594.6.12. (3:142; 7:409) 1598. 5.11. (5:584; 8:390) 등.

52) 1595.1.18. (4:28; 7:533)

53) 1593.4.21. (2:63. 7:192)

54) 1600.10.9. (6:355; 8:687)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이성임(1999), 앞의 논문, 63쪽). ; 한복은 오희문의 토지를 경작하는 한편 자기 밭을 경작했고, 여기에 더 신경을 썼다. 덕노가 면화를 번동하러 갈 때 오희문도 그에게 부탁했는데, 덕노는 자신의 면화는 모두 팔았지만 오희문의 면화는 팔지 못했이라며 도로 가지고 왔다(미야자마 히로시, 『미야자마 히로시의 양반』, 노영구 옮김, 너머북스, 2014, 138~140

소홀,⁵⁵⁾ 불순한 말,⁵⁶⁾ 불결함⁵⁷⁾ 등이다. 분노^⑩ ‘痛憤’)는 미워하는 마음이 증폭된 상태로 표현되었다. 가장 사례가 많은 것은 병을 핑계로 일하지 않은 경우다. 역설적으로 보면 칭병은 노비가 일을 면제받는 타당한 사유였기에, 노주와 노동 강도를 조율하는 신체적 협상의 수단이었다. 이 경우 오히문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노비의 핑계를 수용했으며, 다른 노비에게 일을 맡겼다.⁵⁸⁾

오히문이 노비에게 미움과 분노를 표할 때, 윤리적, 정서적인 타당성이 전제되었기에, 이는 부끄럽다기보다 정당한 것으로 여겼다.⁵⁹⁾

⑫ 함열 현감이 우계에서 보낸 무명 2필을 덕노가 속여서 훔쳐다가 팔아먹고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 매우 분통 터진다. (...) 그 외람되고 쾌약함이 전에 비해 더욱 심하니, 비록 죽은들 무엇이 아깝겠는가.⁶⁰⁾

⑬ (필자: 한복이) 우리 집의 여종을 데리고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허찬의 말도 훔쳐 갔다. 더욱 몹시 괴심하다. 이에 큰 몽둥이로 발바닥을 70, 80여 대 때리고, 여종 강춘에게도 50여 대를 때렸다. 한복을 결박해서 덕노와 춘금이 등을 시켜 관아로 보내면서 사또에게 보고하여 법에 따라 형벌로

쪽). 대체로 솔거노비는 노주가에게 사역되는 시간 이외의 남은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경제활동(經理)에 힘쓸 것으로 기대되었기에(정성미(2003), 앞의 논문, 94쪽), 이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노주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55) 1599.1.10. (6:24; 8:476)

56) 1594.10.7. (3:218; 7:457)

57) 1594.8.17. (3:188; 7:437)

58) 놀은비가 병을 핑계로 일어나지 않아서 송노에게 김을 매게 하고(1595.5.7. 4:116; 7:581), 여종 강춘이 병이 나자 어둔에게 대신 밥을 짓게 한 사례(1594.8.17. 3:188; 7:437) 등.

59) 이는 이문건이 『목재일기』에 기록한 감정 기록과 같은 맥락이다(최기숙(2020), 앞의 논문, 359쪽).

60) ‘但咸悅所送牛溪前木二疋，爲德奴所欺，偷去賣食不傳云。不勝痛憤痛憤! (...) 其乏濫悖惡，比前尤甚，雖死何惜?’ (1594.6.1. 3:125-126; 7:400)

다스리도록 편지를 써 주었다.⁶¹⁾

오희문은 매매를 맡은 덕노가 도중에 물건을 훔치고 팔아먹자 분노를 느꼈다(⑫).⁶²⁾ ‘죽어도 아깝지 않다(雖死何惜)’는 표현은 노비의 윤리적 위반에 대한 판단이 바탕이 되었다. 오희문은 남종 한복이 여종 강춘을 데리고 도주하자, 잡아 오게 해서 발바닥을 때리고 가두었으며, 관에 보고해 형벌로 다스리게 했다(⑬).⁶³⁾ 오희문은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한 말을 많이 한 명노의 발바닥을 때렸고,⁶⁴⁾ 기한 내에 일을 마치지 못한 늙은비를 체벌했다.⁶⁵⁾ 사유는 태만이다.

이상의 사례는 노비가 노주의 명에 대해 항상 복종하기보다, 틈새 시간을 활용했고, 체벌 받지 않는 선에서 노주의 물건을 부분적으로 사취하는 자율성을 누렸음을 시사한다. 노비가 병을 핑계로 휴식을 취한 것은 단지 거짓이나 나태가 아니라 과도한 노동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노비 자신의 방편적 선택이었다. 노비의 도주는 예측가능한 일이 아니었기에, 점을 치기도 했고,⁶⁶⁾ 노비의 실책에 대해 그 가족에게 이르거나, 그 가족이 대신

61) ‘但吾家婢子率走，許鑽馬亦盜去，尤爲痛甚。足掌以大杖七八十餘度打下，江婢亦打五十餘度。漢卜則結縛，令德奴·春金伊等，捉送于官，使之報使，依法刑治事，了簡而付送.’ (1597.6.26. 5:149-150; 8:248)

62) 노비의 상행위는 사역에 해당한다(김용만(1997), 앞의 책, 72~77쪽; 정성미(2003), 앞의 논문, 86쪽). 오희문가에서 물건의 매매를 담당한 이는 노비 막정, 덕노, 한복, 송이, 향춘 등이며, 윤희와 윤겸의 종인 춘이, 개질지, 여동생 남매의 종 덕룡 등이다(이성임(1999), 앞의 논문, 51쪽을 참조).

63) 정성미는 오희문이 게으른 노비를 가차 없이 체벌했다고 서술했고, 논거를 들고 언급한 정황은 기록과 부합한다.(정성미(2011), 앞의 논문, 90쪽.) 그러나 병든 노비의 업무 지연이나 휴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체벌 없이 수용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64) 아침에 사내종 명복을 시켜서 풀을 베어 오라고 했더니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순한 말을 많이 하기에 발바닥을 때렸다(奴命卜使刈草，非但不卽從命，多發不順之言，故打足掌). (1593.6.23. 2:117; 7:220)

65) ‘늙은비가 게으름을 피우고 힘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를 때려 경계했다(訥隱備懶慢不盡力，故杖而警之.)’ (1595.9.19. 4:195; 7:629)

사과하기도 했다.⁶⁷⁾ 노비와 노주는 지배-명령의 위계가 작동하는 수직적 관계였지만, 일정 정도는 협상과 조율을 통해 탄력적인 관계를 형성했다.⁶⁸⁾ 노비의 자율성과 권한은 노주의 감정 폭발에 대한 감정적 상한선에 대한 이해로부터 도출되었다.

(3) 감정의 교차와 유보·통합

오희문은 노비에 대해 양가 감정을 표하거나 복합 감정, 또는 감정의 교차를 경험했고, 이를 유보하거나 통합하는 등 복합적인 차원에서 감정을 조율했다.

첫째, 노비로 인해 느낀 하나의 감정에 서로 다른 진원과 방향성이 내재해 복합적으로 체험된 경우다.

- ⑭ 새벽에 출발하려는데 덕노가 앓는 소리를 내며 일어나지 못했다. 핑계가 아니라 실제로 병에 걸린 것이다. 할 수 없이 도로 중지했다. 매우 걱정된다. 만일 며칠 이내에 차도가 없으면 설 전에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날 아침의 제수를 모두 여기서 준비해 가야 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 더욱 걱정스럽다.⁶⁹⁾

66) 1595.6.21. (4:142; 7:597); 1597.6.26. (5:411; 8:248). 점술가는 각각 이복령과 최경유다.

67) 송노가 도주하자 직산에 사는 그 어미에게 알리려 한 일(1595.6.9. 4:314; 7:593), 업산이 불순한 말을 하여 곤장을 때리자, 그 아버지가 찾아와 사과한 사례(1598.1.13. 5:309; 8:344) 등.

68) 노비의 도주에 대해서는 『목재일기』를 대상으로 하여 노비의 주체적 삶에 대한 회망과 노주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하거나(이혜정, 2012, 165쪽), 『쇄미록』을 대상으로 노비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는 집요한 노력으로 해석한 선행연구(미야지마 히로시(2014), 앞의 책, 140쪽)가 있다.

69) '曉頭臨發, 德奴痛吟不能起, 非托也, 乃實病, 不得已還停, 極悶極悶. 若數日內不差, 則非但不及於歲前, 凡正朝祭物, 皆自此備去, 而若不及則不可說也, 尤悶尤悶.' (1600.12.25 6:384; 8:706)

오희문은 노비가 병이 나자 걱정했는데, 이는 아픈 노비에 대한 걱정이며, 그로 인해 일상에 차질이 생긴 데 대한 걱정이다. 노비는 양반과 '연결된 신체성'을 이루었기에, 노비의 질병은 노주가의 일상에 불편을 주는 원인이 되었다.⁷⁰⁾ 오희문의 '걱정'은 노비에 대한 감정인 동시에, 그와 연결된 노주 자신과 일상에 대한 감정을 모두 의미했다. 감정의 중첩과 연결은 역설적으로 감정의 원인이 되는 두 개의 현실(노비와 양반)이 연결되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노비에 대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교차한 경우다.

- ⑮ 명복이 어제 오태선이 머무는 절에 따라갔다가 관자와 찢어진 어망을 가지고 돌아왔다. 도중에 쓰고 있던 귀마개를 군인에게 빼앗겼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전에 군인들이 행인의 귀마개를 죄다 빼앗는다는 말을 들어서 혼자 돌아올 때는 쓰지 말라고 경계했는데, 내 말을 믿지 않다가 끝내 빼앗겼으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한편으로는 몹시 밍다. 그러나 이처럼 심한 추위에 남쪽으로 내려갈 때 무엇으로 추위를 막는단 말인가. 또한 걱정스럽다.⁷¹⁾

오희문은 남종 명복이 군인에게 귀마개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은 것을 미워하면서도, 혹한에 추위로 고생할 것을 걱정했다. 안타까움, 원망, 미움, 걱정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교차했다(⑮). 한편, 노주와 노비는 일상을 함께하면서 감정적으로도 얽힌 사이가 되었기에, 노비가 사망하면 노주는 감정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노비의 일생을 추억했다.

70) '몸이 고장 나면 삶도 고장 난다'(아서 프랭크(2017), 앞의 책, 21쪽)는 표현은 노비의 몸과 연결된 양반의 신체성과 일상에도 해당한다.

71) '且命卜昨日隨歸吳太善寓寺, 持貫子與破魚網而來. 中路所着耳掩, 爲軍所奪, 可惜可惜. 前日, 聞軍人盡奪行人之耳掩, 戒其獨還時勿着, 而不信吾言, 終乃見奪, 是誰之咎? 一則可惜可惜. 然如此極寒, 南歸之時, 何以禦寒? 亦可慮也.' (1592.12.9. 1:311; 7:142)

예컨대, 오희문은 막정이 평소에 일을 잘하고 민첩했지만, 처(분개)가 도망친 이후로 도주할 마음을 품어 상전을 원망하고 집안일을 살피지 않은 점을 미워해, 죽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사망하자 그간의 노고를 인정했고 객사한 것을 애통해하며 장례와 매장, 제사 등을 지내주었다.⁷²⁾ 노비와 노주는 오랜 세월에 거쳐 생활을 함께하고 감정을 쌓았기에, 사망을 매개로 마치 그간의 일을 회상하며 여러 감정을 동시에 환기했고, 그 과정에서 감정 경험의 스펙트럼이 파노라마처럼 작동했다. 오희문은 이에 대해 노비에 대한 돌봄과 책임으로 갈무리해서 노주로서의 도의를 행동화했다.

셋째, 노비에 대한 감정 표현을 유보하고 관망하거나 포용한 경우다.

- ①6 분명 제가 쓰고서 숨기는 것이리라. 매우 괴씸하다. 그러나 다른 날 대질한 뒤에 징계할 생각이다.⁷³⁾
- ①7 이 남종(덕년)은 지난해 봄부터 해수에 있는 운함의 처가에 있었는데 속이고 빼돌리는 일이 매우 많았다. 이로 인해 그곳에 발을 붙일 수 없어서 제 어미를 찾아 여기에 온 지 오래이다. 함열현 안에 있는 지평택의 계집

72) ‘막정은 본래 평양에 살았는데 14세에 붙잡아 와서 심부름을 시킨 지 이제 37년이 되었다. 여러 곳의 노비들에게 해마다 목화 번동(필자 주: 다른 물건끼리 값을 쳐서 섬을 따지는 일)을 하고 자식들의 혼인 때 남에게 요청하거나 빌리는 일 등을 도맡아 했다. 그런데 조금도 지체하거나 기만하여 제때 미치지 못하는 걱정이 없었으니, 나와 처자식이 난리 속에 피난하면서도 의지하여 일을 맡겼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로 명령을 따르지 않고 조금이라고 흠족하지 않으면 번번이 도망갈 생각을 하더니, 올해 들어 더욱 심했다. (...) 열흘 전부터 병세가 몹시 위중해져서 마침내 죽기에 이르렀으니 매우 불쌍하다(莫丁本居平壤, 而年十四, 捉來使換, 今至三十七年. 凡諸處奴婢收貢, 年年木化反同, 兒輩婚時, 乞求等事, 專任, 而少無遲滯欺慢不及之患. 余妻子亂離奔竄之中, 倚以爲任. 自去年以後, 多不奉承, 少有不快, 輒發逃走之計, 今年尤甚. (...)) 自旬後, 病勢極重, 遽至於斃, 不祥不祥.’ (1595.12.18. 4:236-237; 7:656). 이후 오희문은 막정의 재산을 취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사노비의 재산은 본주에게 귀속된다(정성희(2003), 앞의 논문, 106쪽).

73) ‘必自用而諱之, 可憎可憎. 然他日對詰後, 懲之計計.’ (1595.1.18. 4:28; 7:533)

종 세련개의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와서 인사하지 않았기에 항상 미워하는 마음이 많았다. 그 무례함을 한번 혼내려다가 지체되어 못했는데, 지금 마침내 보잘것없는 물품을 가지고 왔으니 참고 우선은 내버려 두기로 한다.⁷⁴⁾

- ⑱ (송노는) 전에도 두 번이나 말미를 얻어 갔다가 모두 기한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항상 꽤 씹하게 여기던 터라 처음에는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제 아버지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며 끝없이 간청하는 걸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가 보다. 사람의 자식 된 심정은 위아래가 모두 똑같으니 우선 보내주고 다시 빨리 돌아오라고 일렀다.⁷⁵⁾

오희문은 막정이 복시가 보낸 신공을 사취했다고 짐작하면서도 곧바로 힐문하지 않았다. 정황이 불확실하기에 감정의 판단과 표현을 유보했고, 대질해서 증거를 찾을 때까지 감정 표현을 유예했다(⑯). 노비에 대한 감정 표현은 즉각적이기보다는 맥락적이었고, 주거를 함께 하며 축적된 감정의 기억망을 활용해 적절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표현을 유보하면서 내면의 감정선을 조율했다. 예컨대 오희문은 평소에 무례하고 행실이 바르지 않았던 덕년에 대한 정보와 기억을 떠올리면서 즉각적인 감정 표현을 억제하고 관망했다(⑰). 아버지 제사를 이유로 휴가를 청한 송노에 대해서는 그가 종종 기한을 넘기고 늦게 돌아왔던 점을 미워하면서도 이를 허용했다(⑱). 윤리적 사유가 감정의 기억을 압도해 즉각적인 표현을 유보하게 했다.

넷째, 노비와 관련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양가감정과 복합감정이 교차할 때 이를 스스로 관찰하며 통합했다.

74) '此奴自去年春, 在海州允誠冰家, 欺竊之事甚多. 因此不得接迹於其處, 尋其母來此, 日月已久. 留在咸悅縣內砥平宅婢世憐介家, 一不來現, 常懷痛甚. 思欲一懲其惡, 遷延未果 (1595.2.2. 4:37; 7:538-539)

75) 1594.12.21. (3:264 7:485)

- ⑩ (송노는) 6년 동안 도망가서 신공을 바치지 않다가 이제 아주 적은 물품을 가져왔다. 매우 쾌심하지만 참고 용서해 주고 우선 그냥 두었다. 마침 한 양에 갈 때 테리고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쁜 일이다.⁷⁶⁾

오희문은 도주했던 송노가 다른 노비(분개 어머니)의 집에 숨어 있다가 돌아온 정황을 기록했다. 송노는 도주했던 6년 동안 신공을 바치지 않다가 돌아와 바친 물품이 부족했다. 그는 미운 마음이 들었지만, 용서했고 일꾼이 생긴 것을 다행으로 여겨 기뻐했다. 노비에 대한 오희문의 감정은 미움과 인내를 거쳐 용서하고 자위하며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는 흐름을 거쳤다. 이는 노비에 대한 감정의 통합인 동시에,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방편이다.

3. ‘질병과 사망’ 기록의 신분적 위계와 감정 재현의 차이성

이 장에서는 『쇄미록』에 서술된 노비의 질병과 죽음에 대한 감정 수사를 살펴보고, 오희문이 가족의 질병과 죽음에 대한 기록 양상과 비교함으로써, 기록 주체인 오희문과의 관계 친소성 및 신분적 위계에 따라 감정 경험과 태도, 기록 여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한다.

1) 양반가(자신과 가족)의 질병과 사망을 기록하는 태도

『쇄미록』에서 오희문은 가족의 질병이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증세, 원인, 약 처방, 경과 등을 기록하고, 감정 수사를 병치했다. 어머니, 아내, 아들과 딸(특히 단아),⁷⁷⁾ 며느리, 오희문 자신이 이에 해당하는데, 특히

76) ‘六年亡去, 不修貢膳, 而今以微小之物來納, 痛甚痛甚. 然容忍姑舍之, 適及於上京無人之際, 是則可喜.’ (1601.2.16. 6:412; 8:726)

77) 단아는 오희문의 막내딸 숙단이다. 피난 기간 내내 학질 등 병을 앓았고 1597년 2월 1일에 사망한다. 오희문은 단아가 버루를 가져오는 심부름을 하다가 깨뜨리고 꾸지

어머니에 대한 서술 빈도가 높다. 그는 1593년 7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여름 설사병을 앓는 어머니의 병세와 경과에 대해 1달간 상세히 기록했다. 이즈음 오희문도 학질을 앓았지만, 어머니의 병세를 먼저 챙겼고 반드시 감정을 기록했으며,⁷⁸⁾ 문안을 드렸다.⁷⁹⁾

- ⑳ 집사람과 두 딸이 학질을 앓는데, 집사람은 그저께부터 매일 몹시 아파한다. 매우 걱정된다.⁸⁰⁾
- ㉑ 아침에 윤함(셋째 아들)이 또 학질을 앓았다. 큰 병이 다 낫지도 않았는데 또 이 병을 얻었으니 매우 걱정된다.⁸¹⁾

그 밖에 아내(㉒),⁸²⁾ 막내 딸 단아,⁸³⁾ 아들(충아,⁸⁴⁾ 윤겸,⁸⁵⁾ 윤함(㉑)), 며느리(오윤해의 처),⁸⁶⁾ 조카인 봉아(오윤형: 오희문의 둘째 동생인 오희

람을 들을까 걱정해서 울음을 그치지 않았으며 안쓰럽다(可憐可憐)고 적기도 했다(1593.10.19. 2:205; 7:271). 아이의 잘못을 책망하기보다 걱정할 정도로 애정이 도타왔다.

78) ‘悶慮; 可悶; 悶慮悶慮; 悶悶; 悶極; 極悶極悶; 苦不可言; 是可悶也; 罔極罔極’(1593.8.3. 2:149; 7: 243; 239) 등. 자신의 차도에 대해서는 ‘可喜’(1593.8.4. 2:150; 7:239)라고 적었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不勝極喜; 其喜可言; 不勝欣喜; 渾喜可言’(1593.8.6. 2:151; 7:240)라고 상세히 서술했다.

79) 1593.7.29. (2:147; 7:237)

80) ‘家人與兩女痛癢, 家人則自昨昨逐日痛刻, 悶慮悶慮.’ (1593.9.13. 2:180; 7:256)

81) ‘朝, 允誠亦痛癢, 大病未差, 而又得此疾, 悶慮悶慮.’ (1593.9.18. 2:183; 7:258)

82) 1593.9.13. (2:180; 7:256)

83) 단아는 학질을 자주 앓았는데, 이때마다 증상, 경과를 기록했고(1593.5.6. 2:72-73; 7:198); (1593.6.9 2:106; 7:215 등), 사망한 뒤에는 애도의 심정과 더불어 염습 과정, 관을 빌리고 염하고 부고를 전하고 장례 물품을 빌리는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1597.2.1. 5:46-48. 8:189-190).

84) 1593.7.1. (2:123; 7:224)

85) ‘又可悶慮’(1593.9.17. (2:182; 7:258)

86) ‘可慮可慮; ‘尤極悶慮悶慮’(1593.4.14.-15. 2:53; 7:186)

철의 외아들)와 숙선⁸⁷⁾, 봉아의 어머니⁸⁸⁾ 등의 병명과 증세를 적고 이에 대한 감정 반응을 병치했다. 가족과 지친의 질병 기록에 병치한 감정은 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 책임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경로였다. 단, 지친이 병고를 겪을 때는 기쁘고 즐거운 감정을 통제하는 예의를 지켰다.⁸⁹⁾

『쇄미록』에는 친척과 지인의 부고에 대한 기록이 많은데, 반드시 애도의 감정 수사를 병치했다. 지인(이판결사)의 노모⁹⁰⁾ 신녕의 숙모(오희문의 작은 아버지인 오경순의 아내),⁹¹⁾ 처남 이빈과 처사촌인 조관,⁹²⁾ 서쪽 송예,⁹³⁾ 장수 현감,⁹⁴⁾ 참봉 윤응상,⁹⁵⁾ 홍응추,⁹⁶⁾ 삼등 이계(월사 이정귀의

87) 봉아와 숙선이 수척해진 것을 보고 가련히 여겼으며, 홍역을 치른 봉아가 복통을 호소하자 걱정하는 마음을 적었다: ‘可憐可憐; ‘悶慮悶慮.’ (1592.12.14. 1:314-315; 7:144)

88) ‘悶慮悶慮’ (1593.1.5. 2:28; 7:174)

89) 피난 초에 오희문은 외삼촌 댁을 방문했는데, 외삼촌의 병세가 위중해서, 종형제와의 만남을 기뻐하지 못했다(諸從兄弟皆會, 相見甚喜, 因三寸之病, 未得共歡).’ (1591.1 1:52; 7:8) 박천정은 동생의 아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다 (1591.3 1:61; 7:11). 오희문은 친구(심사화의 형제)와 친척을 만난 자리에서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고 밤새 회포를 풀었는데, 이는 맥락상 허용이 있어서다. 심사화가 노자를 보태준 정황은 이들의 정담을 허용했음을 뜻한다. (1591.4.1. 1:63; 7:12)

90) ‘이판결사가 노친을 모시고 공주에 도착한 날 저녁에 노친이 별세하여 간신히 염을 하고 입관했다고 한다. 슬픔을 이기기 어렵다(且聞李判決事陪老親, 行到公州, 其夕, 老親棄世, 僅得殮棺云, 不勝哀悼哀悼).’ (1592.11.26. 1:301; 7:135)

91) ‘신녕과 김계 두 숙모께서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애통하다(且聞新寧·金堤兩叔母, 因病棄世云, 不勝哀慟哀慟).’ (1592.11.29. 1:305; 7:138)

92) ‘不勝警痛警痛; ‘尤爲哀慟’ (1593.4.7. 2:46; 7:183).

93) ‘不勝哀悼哀悼’ (1593.5.20. 2:93; 7:208).

94) ‘장수 현감의 상을 들은 뒤로 젊어서부터 늘 같이 살며 사이 좋게 지내던 추억이 생각나 하염없이 눈물이 흐른다. 그의 처자식들은 어떻게 연명하고, 상여는 어떻게 모셨을까. 비통하기 그지없다. 아! 슬프다(自聞長水之喪, 每念自少同處相厚之情, 痛泣無已. 況其妻子何以連命, 其喪柩何以處之? 尤極悲痛. 嗚呼哀哉哀哉!).’ (1592.11.30. 1:306; 7:139)

95) ‘不勝驚悼’ (1593.11.15. 2:225; 7:284)

96) ‘不勝哀悼哀悼; 尤極悲痛’ (1593.11.19. 2:228; 7:286)

부친),⁹⁷⁾ 오세량,⁹⁸⁾ 이광복⁹⁹⁾ 등의 부고, 이탁의 아들 시룡의 요절,¹⁰⁰⁾ 류영근 가족의 사망과 투신¹⁰¹⁾ 소식 등에 애도의 감정을 병치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오희문이 가족과 지친의 질병, 사망, 부고에 감정 수사를 병치한 것은 질병을 대하는 ‘태도’나 감정적 반응이야말로 이들에 대한 애정과 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2) 노비의 질병과 죽음을 대하는 ‘양반-노주’ 시선의 복합성

『쇄미록』에 서술된 노비의 질병과 죽음에 대한 시선과 태도는 복합적이다. 이를 감정 반응과 표현을 중심으로 범주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비의 질병이나 사망에 대해 관리해야 할 일종의 일상 정보로 기록하되, 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나 현실적 대응을 서술하지 않은 경우다.

- ② 여중 춘비가 죽었다. 송노에게 시신을 써서 내일 새벽에 용복과 협력해 묻어 주라고 했다.¹⁰²⁾

여중 춘비가 사망에 대해 오희문은 사망 사실과 시신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적었을 뿐, 이에 대한 감정 반응은 적지 않았다. 발에 종기가 난 남중 명복¹⁰³⁾에 대해서도 증상, 침 치료, 차도 등을 적고, 완쾌하지 않은 상태에서 떨나무를 시켰다고 했는데,¹⁰⁴⁾ 이에 대한 감정은 기록하지 않았다. 노비

97) ‘不勝驚悼驚悼’ (1593.12.26. 2:266; 7:308)

98) ‘不勝驚悼驚悼’ (1593.12.30. 2:268; 7:309)

99) ‘尤爲哀悼’ (1593.10.9. 2:196; 7:267)

100) ‘不勝哀悼哀悼’ (1593.윤11.6 2:237; 7:291)

101) ‘相對以泣’; ‘不勝哀慘哀慘’ (1592.12.15. 1:315; 7:145)

102) ‘且婢春非死。令宋奴裹屍，翌曉與龍福并力而埋之.’ (1592.11.22. 1:299; 7:135)

103) 1593.11.18. (2:227; 7:285)

의 병과 사망을 일종의 관리해야 할 정보로 처리한 경우다.

둘째, 노비의 질병과 사망으로 일상에 피해가 생겼다고 여겨 불편하게 여기고 미워한 경우다. 노비가 병을 핑계로 노동이나 의무를 회피한다고 여긴 경우에도 동정이 아닌 미움을 표했다.¹⁰⁵⁾

② 어두워질 무렵에 계집종 열금이 태인에서 왔다. 전에 부중에 걸렸는데 이곳에 온 뒤에 병세가 매우 심해져서 온몸이 다 부었다. 홉집에 들어가 살면서도 먹고 마시는 것만은 평소와 다름없어 늘 술과 고기를 찾고 조금만 여의치 않으면 번번이 성난 말을 내뱉으니,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아침저녁으로 죽을 끓여 끼니를 잇기도 어려운 마당에, 하물며 감히 술과 고기를 마련하여 다 죽어가는 늙은 계집종에게 날마다 먹여 줄 수 있겠는가. 병이 비록 위중하지만 빨리 안 죽으면 우리 집에 곤욕을 끼치는 일이 많을 것이니, 한편으로 괴심하다.¹⁰⁶⁾

오희문은 열금이 병으로 일하지 못하는데 술과 고기를 찾는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면서, 빨리 죽는 편이 낫겠다는 뜻을 비쳤다. 종의 병을 동정하고 사망에 애도하기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질을 신경쓰며 불편해한 경우도 있다.¹⁰⁷⁾ 여종 옥지의 사망에 대해 인간적으로 애도하기보다, 가용

104) 남종 명복이 비로소 거동하여 땔나무를 베어 왔다. 종기가 난 발이 아직 깔끔하게 낫지는 않았지만 집에 땔나무가 없기 때문에 절뚝거리는데도 억지로 보낸 것이다. (1593.11.25. 2:230; 7:287)

105) 해당 사례는 이 논문의 2.3)절의 (3)을 참고.

106) ‘且昏, 婢悅今, 自泰仁來. 時得浮證, 來此後, 病勢極重, 滿身盡浮, 入處土屋, 唯飲食則比平昔無加減, 每求酒肉, 小不如意, 輒發憤言, 不可說也. 朝夕餽粥, 尙難繼之, 況敢備酒肉, 日饋垂死之老婢乎? 病雖危重, 若不凍死, 侵困我家多矣, 一則可憎可憎.’ (1594.12.12. 3:258; 7:481)

107) ‘처가의 여종 꾀복이 여기에 온 지 오래지 않아 또 병이 났다. (...) 한집안 일에 지장이 많으니 걱정이다(妻家婢尅卜, 來此未久, 又得病患. (...) 一家之事, 多有防礙. 可悶可悶).’ 1593.4.5. 2:43; 7:182); 여종 셋도 누워 앓고 있어서 저녁밥을 지을 사람

할 노비의 수가 준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¹⁰⁸⁾ 꾀복,¹⁰⁹⁾ 막정,¹¹⁰⁾ 늙은 개,¹¹¹⁾ 김담,¹¹²⁾ 막비¹¹³⁾ 등이 병(학질,¹¹⁴⁾ 홍역, 두통, 발목 염좌, 부스럼, 뱀에 물림 등)에 걸리자 밥 짓기, 논매기, 밭 갈기 등의 일손에 결원이 생긴 점을 불편해했다. 이러한 태도는 가족과 지친에 대한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
- 이 하나도 없으니 안타깝다(三婢亦臥痛, 夕飯無一人炊供, 可嘆可嘆. 1593.9.11. 2:179; 7:256) 등.
- 108) ‘우리 집 여중 옥지가 죽었다고 한다. 노비 수도 적은데 모두 죽어서 남은 자가 없으니 매우 안타깝다(家婢玉只定死云, 數少奴婢, 盡死無餘, 深可嘆也).’ (1594.2.15. 4:49; 7:545)
- 109) ‘한집안 일에 지장이 많으니 걱정이다(一家之事, 多有防礙. 可悶可悶).’ (1593.4.5. 2:43; 7:182)
- 110) ‘다만 막정이 어제부터 머리가 아파 먹지 못하고 저녁내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다. 내일 떠나려는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내중이 이와 같으니 매우 답답하다. 만일 반에도 차도가 없으면 떠날 수 없을 텐데, 혼사는 임박하여 더욱 몹시 답답하다(但莫丁自昨痛頭, 不食, 終夕臥不起. 明日將行, 而長奴如此, 極悶極悶!).’ (1594.8.3. 3:178; 7:431)
- 111) ‘여중 늙은개가 어제저녁부터 앓아누웠는데 오늘도 일어나지 못했다. 이 같은 농사철에는 한 사람도 중요한데 여러 날 누워 있으니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지경이다(且非訥隱介自昨夕臥痛, 今亦不起. 如此農月, 一人有關, 而累日臥之, 不可說也.).’ 1595.5.10. 4:118; 7:582) 그러나 보리밭을 갈 때 놀비가 밭을 헛디더 많이 다쳐서 걷지 못했다. 발목이 많이 부어서 요새는 밭을 매지 못한다. 걱정이다(但落種時, 訥婢跌足重傷, 不能行步, 足項大浮, 近日不可芸草, 可悶可悶.).’ (1597.7.1. 5:154; 8:251)
- 112) ‘김담의 다리에 부스럼이 나서 일을 시킬 수 없으니 안타깝다(金淡脚上生瘡, 不能任使, 可恨.).’ (1597.8.3. 5:178; 8:266)
- 113) ‘인아의 여중 막비가 뽕잎을 따러 산에 올라갔다가 뱀에게 발을 물려 실려 왔으므로 즉시 침으로 독을 빼게 했다. 그러나 발등이 몹시 부어 걷지를 못한다. 일이 많은 요즘 같은 때에 부리지 못하니 걱정스럽다(麟兒婢莫非摘桑事上山, 爲蛇所觸, 而傷足載來, 卽令鍼破矣. 但足背極浮, 不能運步, 近日多事時, 不可任使, 可悶可悶.).’ (1599.윤4.14. 6:92; 8:518)
- 114) ‘또 4명의 여중이 모두 학질을 앓아 아침저녁으로 밥 짓기도 제 때에 하지 못하니 더욱 걱정스럽다(又且四婢子, 皆痛瘡, 而朝夕之炊, 尙不及時, 尤極悶悶.).’ (1597.1.10. 5:29-30; 8:180-181)

셋째, 아픈 노비의 질병과 사망을 기록하며 동정과 염려를 표현한 경우다.

- ④ 일전에 여종 복이가 그 자식들과 함께 굶어 죽었다고 들어서 항상 불쌍히 여겼다.¹¹⁵⁾
- ⑤ 여종 개비와 남종 성금이가 모두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 (...)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다. (...) 그런데 이제 모두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전에 들은 것이 모두 헛소문이었다. 매우 기쁘다.¹¹⁶⁾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이 논문의 2장 3)절의 (1)) 오희문에게 노비란 인류애적, 생명적 차원의 공감을 나누는 존재였기에, 노비의 질병과 경과를 기록했고,¹¹⁷⁾ 병고에 시달리고, 임종을 앞둔 노비를 걱정했으며,¹¹⁸⁾ 사망 소식(④)에 대해 슬픔을 표했다. 죽은 줄 알았던 종들(⑤)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기뻐했다. 노비의 육체적 고통에 감성적으로 동정하고 근심하면서, 양반 또한 노비와 감성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확인했다.¹¹⁹⁾

115) ‘且婢福只初聞與其母子俱死於饑死, 常以爲不祥.’ (1593.7.20. 2:141-142; 7:234)

116) ‘又聞婢介非及奴成金伊皆不死而保存. (...) 意爲已死者也. (...) 而今聞皆生存, 前聞虛矣, 可喜可喜.’ (1595.5.4. 4:113; 7:580)

117) ‘또 언명에게 들으니 향비의 종기는 아직도 낫지 않고 다른 곳까지 생겨서 고름이 지금까지 그치지 않는데 종기를 고치는 의원은 돈이 적다면서 힘껏 치료해 주지 않고 또 바를 약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 모자가 먹고살기 어려워서 날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단다(且因彥明聞香婢腫尙米差復, 又生他處, 濃汁至今不絕, 治瘻醫者, 以其價少, 不能盡力, 又不給藥而塗之, 其母子艱食, 飢餓日迫云云.)’ (1599.1.6. 6:22-23; 8:475)

118) ‘여종 열금이 이곳에 온 뒤로 허리 아래가 몹시 부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한다. 불쌍하다. 죽으려나보다(但婢悅今自來此後, 腰下重浮, 不能運身, 大小便不擇, 可憐, 死矣夫.)’ (1594.10.13. 3:221; 7:458)

119) 정성미는 오희문이 아픈 노비에게 의원을 불러주고, 죽은 노비에 대해 슬퍼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감정의 차원이며, 이성적으로 노비를 인격체로 보아 시혜를 베풀기보다 노비를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한 회유나 선심이라고 해석했다(정성미

넷째, 아픈 노비에 대해 애증이 공존하거나, 순차적으로 이행한 경우다. 노비는 노주가의 일상을 위한 도구적 존재이자 실질적인 장치였기에, 이들에게 병이 생기면 노주는 일상 시스템에 지장을 초래하여 불편감을 주는 문제적 대상으로 인지했다. 예컨대, 향비(향춘)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자, 오희문은 단아(딸)를 엄마에게 데려다 줄 수 없음을 개탄했다. 오희문은 향비가 발병한 1593년 10월 26일부터 30일에 치유될 때까지 매일 향비의 증세, 차도, 회복, 노주로서의 조치를 기록했다. 향비가 전염성 질환에 걸리면 격리조치 했고, 아파하는 모습을 걱정(悶慮悶慮)했으며 차도가 있으면 기뻐했다(可喜可喜).¹²⁰⁾ 여종의 병세에 대한 걱정과 차도에 대한 기쁨은 노비 개인에 대한 동정과 공감, 일상에 불편감이 소거된다는 안도감과 증첩되었다. 양반과 노비의 관계 복합성(장치이면서 사람, 연결된 신체성)이 노비의 질병에 대한 복합 감정(불편하면서 걱정됨)으로 이어졌다. 광노의 학질에 대해서도 일면 걱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일상에 문제가 생기는 점을 동시에 걱정했다.¹²¹⁾ 노비의 몸은 양반의 일상과 긴밀히 연결되었기에, 노비 개인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노비와 연결된 신체로 작동하는 자신과 가정의 일상이 지체되는 현상을 염려했다. 이 두 감정은 연결되고 증첩되었는데, 이는 노비와 양반 사이의 관계성을 감성의 차원에서 압축적으로 반영했다.

다섯째, 아픈 노비를 배려해 도움을 준 경우다. 구체적으로는 외근이나 부역의 면제, 휴식과 휴가, 치료와 처방에 대한 도움 등이다. 오희문은 손을

(2003), 앞의 논문, 108~109쪽). 문학해석학적 관점과 감정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해석학적 다양성과 편폭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120) 1593.10.26.-30. (2:209-212; 7:274-275).

121) '광노가 어제 또 학질을 앓았다. 매우 걱정된다(光奴昨日亦痛癩, 可慮可慮.)' (1596.8.19. 4:403. 8:100); '내일은 집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덕노의 발에 차도가 없으니 큰 고민이다(明欲下歸, 而德奴足不差, 極可悶也.)' (1596.8.24. 4:407-408; 8:102)

다친 노비에게는 다리를 쓰는 일을 시키는 등,¹²²⁾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했지만, 일을 면제해주기도 했다.

②⑥ 사람을 시켜 이기종을 불러다가 강비의 종기를 침으로 짜게 하고 술 한 대접을 대접했다.¹²³⁾

②⑦ 들으니, 항비의 병세가 여전하다고 한다. 한양에서 하루를 머물고 곧장 광주 토당 산소 아래에 신고 가서 병을 치료하게 했다고 한다. 그곳에 사는 문억이라는 자가 부스럼을 잘 고치기 때문에 그곳에 보내어 침으로 종기를 터뜨리고 약을 먹게 하려는 것이다. 돌아갈 때 포목 1필 반과 꿀 2되를 부쳐 보냈다. 약값으로 쓰게 하려는 것이다.¹²⁴⁾

오희문은 복통이 있는 춘금에게 집에서 조리하게 했으며,¹²⁵⁾ 여종 강춘이 종기가 나서 움직이지 못하자, 의원(이기종)을 불러 침을 놓게 했다(②⑥). 종기로 고생하는 항비를 위해 약값을 보태주었다(②⑦). 아픈 종이 몸을 조리하게 했으며, 이동이나 운반 업무를 면제하고 치료를 도왔다. 이는 노비를 배려해서이지만, 가족에게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여섯째, 오희문은 일상을 함께한 종들이 죽으면 그 일생을 회상하며 회

122) ‘송노를 함열에 보내 양식을 구해오게 했다. 송노가 손을 다쳐서 편하게 앉아 있어서 만이 아니라 양식이 떨어져서 품팔이꾼을 구해서 김을 맬 수 없어서이다(此宋奴於咸悅，爲覓救資也。非但宋奴傷手安坐，又因絕糧，故亦不得品人而芸草耳。)’ (1595.5.29. 4:128; 7:588)

123) ‘且使人招李起宗，針江婢腫處，饋酒一器.’ (1594.8.20. 3:191; 7:438)

124) ‘聞香婢病勢如前。留京一日，卽載去于廣州土塘山下治病，乃其地居文億者善治瘡腫，故送于其處，使之鍼破服藥爾。歸時木一疋半·清兩升付送，以爲藥價矣.’ (1598.9.9. 5:452; 8:430)

125) ‘춘금이 배가 아파 걷지 못하기에 묵었던 집에 남겨 두고 조리한 뒤에 오라고 했더니, 점심 먹는 곳으로 뒤쫓아왔다. 그러나 아직 다 낫지는 않았다(但春金伊腹痛不能行步，棄所宿價，使之調來，而追到點心處，然尚未差復矣).’ (1599.5.2. 6:102; 8:524)

고와 감상을 적었는데, 그 과정에서 노비의 생애가 일화 중심으로 서술된 경우가 있다. 이는 사실상 노비에 관한 유사(類似) 전, 행장, 유사(遺事) 등에 상응하는 문학사적 가치를 지닌다. 동을비,¹²⁶⁾ 열금(⑳), 서대(㉑), 천복의 어미(㉒), 막정,¹²⁷⁾ 복이,¹²⁸⁾ 등이 이에 해당한다.

㉒ 지난밤에 늙은 여종 열금이 죽었다. 병세가 너무 심해서 구원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차디찬 곳에서 오래 거처했고, 배불리 먹고 마시지도 못했으며,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구할 길이 없어 하나도 먹지 못하고 죽었다. 불쌍하다. 성질이 본래 험악하여 조금만 여의치 않으면 번번이 성 내며 욕을 해 대고 심지어 상전 앞에서도 공손치 않은 말을 많이 하여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고 미워했다. 비록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지만, 어렸을 때 잡혀 와서 심부름을 하면서 칠순이 넘도록 한 번도 도망치지 않았고, 또 길쌈을 잘하며 집안일에 부지런하고 단속을 잘했으며 조금도 속이는 일이 없었으니 이 점은 취할 만했다. 타향으로 정처 없이 떠돌다가 죽어서는 관에 들어가지도 못했으니, 더욱 슬프고 안타깝다.¹²⁹⁾

㉑ 그편에 들으니, 여종 서대가 병이 나서 냇가에 움막을 쳐서 내보냈는데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냇가로 기어가다가 그곳까지 가지도 못하고 얼어져 죽었다고 한다. 더욱 슬프다. 서비는 열 살도 되기 전에 어머니께서 데리고 와서 눈앞에서 부리면서 잠시도 떼어 놓지 않았다. 집안일을 부지런히 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꿔 오는 데에

126) ‘去夜，冬乙非化逝去。先世奴婢，唯此生存，而客死於他鄉，不勝哀憐哀憐。則令奴輩埋之，因此無奴，不得往見趙家成服。’ (1593.9.28. 2:188; 7:261)

127) 이 글의 각주 72)번을 참조.

128) 1593.5.8. (2:82; 7:202)

129) ‘且去夜，老婢悅今化去。病勢極重，勢不可救，然久處冷地，飲食亦不得飽，雖有欲食之物，得之無由，一不得食而死。可憐可憐！性本險惡，少不如意，輒發怒詈，至於上典之前，亦多不恭之言，人皆厭惡，雖死不足惜，但少時被捉來使，年過七十，而一不亡走，尤善紡績，勤儉家事，小無欺竊之事，是足可取，而漂迫他鄉，死不就木，尤可哀嘆哀嘆。’ (1594.12.15. 3:260-261; 7:482-483)

자못 능력이 있어 어머니께서 의지하시는 것이 실로 많았다. 지금 난리를 만나 아무리 어려워도 잠시도 떼어 놓지 않았고, 남쪽 물가로 떠돌면서도 항상 테리고 다니셨다. 그런데 뜻밖에 보살피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병으로 죽었으니 불쌍하기 그지없다. 어머니께서 이로 인해 마음이 상하여 눈물을 그치지 않고 식사량도 갑자기 줄어 기운이 자못 편치 않다고 한다. 매우 답답하고 걱정된다.¹³⁰⁾

- ③ 천복의 어미는 곧 친가 남종의 처이고 어머니와 동갑인데, 성질이 본래 순후하여 그 남편이 일찍 죽은 뒤로 수절하고 홀로 살면서 우리 어머니를 제 상전 섬기듯 했다. 모든 혼례나 장례, 제사 때면 언제나 와서 음식 만드는 일을 맡아 조금도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 출입하던 50여 년 동안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몹시 아끼고 불쌍히 여겼으며 안팎의 여러 집안에서도 모두 착하다고 칭찬했는데, 이제 비명에 죽었다고 하니 슬픔과 탄식을 금할 수 없다.¹³¹⁾

오히문은 여중 열금이 병들어 사망해 묻히는 과정을 상세히 적었다(28). 평소에 공손하지 않아 미워하기도 했고, 죽어도 아까울 게 없다고 썼지만, 칠순이 넘도록 도망가지 않고 부지런히 일한 점을 인정했다. 열금에 대해 애증의 감정이 있었지만, 객지에서 죽어 관에도 들어가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여겨, 길가에 묻어 주게 했다. 어머니의 여중 서대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애도하면서 서대에 대한 기억을 환기했다(29). 어머니가 평소에 아끼던

130) ‘因聞婢西代得病，結幕川邊而黜送，無人救活，故因渴思水，葡萄川邊，未及水而仆死云，尤極哀悼。西婢年未十歲，天只率來，眼前使喚，須與不離，勤幹家事，懋遷有無，頗有其能，天只其倚賴實多。今遭亂離，備嘗艱難，亦不暫捨，流寓南濱，隨以帶居，不意病死於不救，不祥不祥。天只因此傷懷，涕泣不止，進食頓減，氣頗不平云。不勝悶慮。’ (1593.11.5. 2:216-217; 7:279)

131) ‘千卜之母，乃親家奴妻，而與母氏年甲也，性本諄厚，自其未早死之後，守節獨居，事吾母主，如事自己上典。凡婚喪祭祀之時，皆來典饌需之任，少無忤旨。出入五十餘年，亦無少怠，母氏甚爲愛憐，內外諸門，咸稱善遇，而今聞其死於非命，不勝悲嘆。’ (1593.5.8. 2:77; 7:200)

여종인 천복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적고 슬픔과 탄식을 표했다(30). 노비의 일상과 일생에 대한 기록이 드문 정황에서 노비의 사망을 매개로 그 일생을 회고하는 양반의 행위는 노비와 양반이 일생을 통해 연결성을 유지했고, 희노애락이 혼효될 정도로 관계가 긴밀했고 유의미했음을 시사한다.

노비의 과거를 회상하여 서술한 부분은 일종의 유사(類似) 약전(略傳), 또는 유사(類似) 행록 및 유사(遺事)에 상응하는 문학사·문화사적 가치가 있다. 다만 그 기억은 노주와의 관계 속에서 환기된 내용이기, 한 사람의 생애에 오롯이 집중해 서술한 제도적 문학(文)으로서의 전과는 구분된다. 노비가 문자화되는 관계의 특수성이 기억되는 방식 및 서술 내용에도 투영되어, 노비의 역사문화적 위치성과 유비적 상동성을 형성했다.

4. 결론: 노-주의 네트워크 신체성

오희문이 『쇄미록』에 기록한 노비에 대한 감정은 복합적이며, 이질적인 감정이 교차하거나 양립하는 방식으로 스펙트럼을 형성하는 복잡성을 보였다. 노비에 대한 양반 노주의 감정은 일정 부분 가족이나 지친 등에 대한 감정 반응과 중첩되어 인간 보편의 동질성에 기반한 등위 감정으로 표출된 경우도 많았지만, 신분적, 도덕적 요인에 따라 위계 감정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감정 주체인 노주가 노비의 계약 위반이나 의무 또는 약속의 불이행, 업무 지체, 사취, 도주, 거짓말, 무례, 불손, 비위생 등의 사유에 대해 도덕적, 윤리적인 판단을 발휘해 감정 표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성도 나타났다. 양반은 노비와 일상과 생애 시간을 공유했기에, 노비에 대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적층되었고, 이질적인 감정이나 양가감정이 교차하기도 했다. 오희문은 이를 자연스러운 감정 경험으로 수렴하면서 때로

는 감정의 발현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내면의 감정을 통제했고 노비와의 관계를 조율했다.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노비에 대해서는 감정이 복합적으로 축적되었는데, 대체로 노주로서의 돌봄 의식과 책임감으로 이에 대한 감정을 통합하려는 지향성을 보였다. 노비가 사망하면 그와 함께한 생애를 회고하는 과정에서 노비를 둘러싼 감정 경험의 이력이 서술되었다. 노비 자신의 기록이 부재한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이런 쓰기 내역은 결과적으로 노비의 생애를 양반의 입장에서 약술한 노비의 유사 약전, 행록, 유사에 해당하는 문화사적 가치를 지닌다.

양반의 노비에 대한 감정 경험과 표현의 특징은 노비의 질병과 사망을 둘러싼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다. 가족이나 지친의 질병과 사망에 대해서는 감정적 공감과 염려, 애도가 반드시 병치되었지만, 노비에 대해서는 해당 감정이 선택적으로 표출되었다. 노비의 질병이나 사망에 대해 감정을 배제한 체 정보 관리의 차원에서 기록한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해 양반의 일상에 불편감을 주었을 경우, 동정과는 다른 차원에서 일상에 차질이 발생한 것을 걱정했다. 노비는 양반과 연결된 신체성을 이루기에, 노비의 질병이 노비의 몸에 일으킨 고통과 불편함은 그대로 양반의 몸과 그 삶의 불편함으로 이어졌다. 이때 노비의 병을 대하는 노주의 마음은 정보 내용과 진실성에 따라 가변적이었다. 노주는 ‘진짜 질병’과 ‘진짜 아픔’만을 동정했지만, 실재하는 모든 노비의 질병에 동정을 표한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지점에서 노비와 양반은 신분적 격차를 떠나 질병이라는 인간 보편의 신체 경험을 통해 연결되었고, 관심과 배려, 동정과 치료 등의 정동적 실천으로 통합되었다.

『쇄미록』을 통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노비는 노주의 명에 무조건 복종하는 ‘기계-하인’ 또는 ‘복종-기계’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의도적 지체, 거짓말, 사취, 도주 등을 할 수 있는 자율적 대상으로 여겨졌고, 노비와 양반은 탄력적으로 연결된 신체성을 형성하면서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는 무의식적, 비가시적 형태로 사회적으로도 통용되었다. 가족이 아닌 노비의 질병과 사망 기록에 감정 수사가 선택적으로 병치된 것은 신분적 위계가 감정의 경험과 표현에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주관계는 신분적 위계에 따라 수직적인 단일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경험과 시간의 축적에 따른 친소성에 따라 다선적이고 복잡적이며 중층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신분이나 사상, 젠더 등 문자 중심의 기록을 재구성하거나 재현하는 방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었던 조선시대 역사 문화의 실상을 확장적으로 재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문학은 쓰여진 대로 읽는 축자적 독해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잠재된 의미, 감각, 사유, 의식과 무의식의 긴장 관계를 독해하는 창의적 상상력의 수행 과정이며 텍스트를 한계 없이 재생산하는 비평 작업이기 때문이다. 비-문자 감성 연구는 사실 기록에 입각한 역사화된 일기 텍스트를 무한히 펼쳐지는 감각적 문학의 텍스트로 재구성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역사 속에 실재했던 일상 기록의 일기는 상상력과 사유, 감각을 환기하는 문학적이고 철학적이며 역사적 맥락에서 작동하는 열린 텍스트로 재탄생한다. 이 연구는 이런 작업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인 동시에, 이 과정의 보편적 타당성을 타진하는 이론적 방법론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노주 양반이 노비에 대해 인지, 경험, 재현한 감정 기록을 중심으로 노-주 간에 작동한 네트워크 신체성의 실상을 해명함으로써, 양반 남성이라는 동성·등위 집단으로 구성된 단면적, 또는 단면의 내부에 존재하는 긴장과 협력의 역동성(계보화, 또는 대립과 충돌)에 집중된 정치적·사상적·학문적 이해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었던 현실의 다층성과 감성적 복합성의 차원에서 노-주 관계를 재구성함으로써, 조선시대 역사와 문화에 대한 편폭을 확장하고 심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방법론과 분석 결과는 성별, 젠더, 신분이나 계급, 인종, 언어 등 특정 요소로 인해

문화적 위치성이나 관계성을 고착시키는 문화적 기제를 성찰하여, 사회와 세계를 구성하는 주체(agent)가 협력적 연결성과 공생적 네트워크로 재구성되는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오희문, 『쇄미록』 1~8, 국립진주박물관 편,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옮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 『譯註 經國大典』 翻譯篇, 韓沈旆 외 옮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5, 1~555쪽.
- 이문건, 『국역 목재일기』 1~6권, 정공식 외 옮김, 경인문화사, 2019.
- 한국학진흥사업성과포털사이트(<http://waks.aks.ac.kr/rsh/?rshID=AKS-2014-KFR-1230007>).
- 김연수, 「『쇄미록』에 나타난 16세기 혼맥과 친족관계」, 『한국민속학』 75, 한국민속학회, 2022, 79~108쪽.
- 김용만, 『朝鮮時代 私奴婢研究』, 집문당, 1997, 1~428쪽.
- 미야지마 히로시, 『미야지마 히로시의 양반』, 노영구 옮김, 너머북스, 2014, 1~256쪽.
- 신병주, 「16세기 일기자료 『쇄미록』 연구」, 『조선시대사학회』 60, 조선시대사학회, 2012, 37~70쪽.
- 아서 프랭크, 『아픈 몸을 살다』, 메이 옮김, 봄날의 책, 2017, 1~256쪽.
- 이성임, 「조선중기 오희문가의 상행위와 그 성격」, 『조선시대사학회』 8, 조선시대사학회, 1999, 41~70쪽.
- 이종봉, 『新編集成牛·馬醫方』 편찬 배경과 찬자」, 『역사와경계』 121, 부산경남사학회, 2021, 231~268쪽.
- 이혜정, 「16세기奴婢의 삶과 의식 세계: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경희대 박사논문, 2012, 1~207쪽.
- 전형택, 『조선 양반사회와 노비』, 문헌, 2010, 1~470쪽.
- 정성미, 「『쇄미록』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논문, 2003, 1~142쪽.
- 지승중, 『朝鮮前期 奴婢身分研究』, 일조각, 1995, 1~402쪽.
- 천명선, 「조선시대 가축전염병: 개념, 발생 양상 및 방역을 중심으로」, 『농업사연구』 13(2), 한국농업사학회, 2014, 109~132쪽.
- 최기숙, 「고소설에 나타난 '부부 불화'의 통계 분석을 통해 본 '부부 갈등'과 '결혼 생활'의 상상 구도」, 『동방학지』 149,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0, 373~414쪽.
- 최기숙 외, 『감성사회』, 글항아리, 2014, 1~380쪽.
- 최기숙, 「『목재일기』, 16세기 양반의 감정 기록에 대한 문학/문화적 성찰」, 『국

어국문학』 193, 국어국문학회, 2020, 321~364쪽.

최기숙, 「말한다는 것, 이른 바 ‘알(曰)을 둘러싼 한글 소설 향유층의 의사소통 이해와 실천: 한국서사문학사의 발화동사를 둘러싼 ‘어휘군/어휘장’ 분석을 경유하여」, 『동방학지』 19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1, 169~207쪽.

_____, 「매 맞는 노비와 윤리/교양의 역설: 『목재일기』의 문학해석학적 연구」, 『동방학지』 20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3a, 159~187쪽.

_____, 「조선시대 노-주의 연결망과 공동체성, ‘아카이브 신체’: 『쇄미록』의 노비 기록에 대한 문학해석학적 연구」, 『민족문화연구』 10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3b, 129~160쪽.

ABSTRACT

The Emotional Spectrum of the ‘*Yangban*-owner’ about
the Servants and the Network Physicality

- Focusing on the Emotional Investigation and
‘Disease/Death’ Records of *Shaemirok*

Choe, Key-sook

This article analyzes the emotions and attitudes of *yangban* (elite literati) toward *nobi* (servants) based on the records related to *nobi* described in Oh Himun’s diary, *Shaemirok*, using the concept of emotional spectrum, and compares and analyzes the *yangban*’s attitudes and emotional representations toward *nobi*’s illness and death with those of *yangban* families. In doing so, it clarifies, through a textual interpretation methodology, that the *nobi*’s owners in the Chosŏn Dynasty formed connections in everyday, experiential, and emotional dimensions and constituted network-physicality. In the Chosŏn era, *nobi* were not merely auxiliary and objectified tools that helped the daily lives of their masters, the *yangban*, but rather served as an archived ‘device’ that maintained and connected the physical daily lives, information, ethics, manners, and emotions of the *yangban* (family). The feelings of the *yangban* as master toward *nobi* overlapped to some extent with the emotional reactions toward family or relatives, and were often expressed as empathetic feelings based on universal human homogeneity, but they were also expressed as feelings of hierarchy depending on social status and moral factors. The subject of emotions, *yangban* as owner of *nobi*, showed a tendency to secure the legitimacy of emotional expression by exercising moral and ethical judgment regarding the *nobi*’s breach of contract,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or promises, delay in work, fraud, running away, lying, rudeness, impoliteness, and unsanitary behavior. Because the *yangban* shared their daily lives and life times with *nobi*, their feelings

toward *nobi* were complex and mixed, with heterogeneous or ambivalent feelings intersecting. The nobles had complex feelings for the *nobi* they had spent a long time with, and they tended to integrate these feelings with their sense of care and responsibility as *nobi* owners. This study aims to deepen and expand the scope of Chosŏn history and culture by understanding the realistic and emotional dimen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obi* and *yangban* as their owner that could not be approached solely through political, ideological, and academic understanding of the same status and gender as male *yangban*, by elucidating the reality of the network physicality that operated between *nobi* and *yangban*-owner, focusing on the emotional records that the masters recognized, experienced, and reproduced regarding *nobi*.

Key Words servant (*nobi*), *yangban*, Oh Himun, *Shoemirok*, diary, illness, affect, emotion, network physicality, body as the archive

논문투고일: 2024.12.31.
심사완료일: 2025.02.11.
게재확정일: 2025.02.11.